

## 인물탐방 INTERVIEW



### (주)동양건설산업 이길재 사장

도로및공항 · 토목시공 기술사

(주)동양건설산업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료전지를 아파트에 도입하여 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루었다. 또한 전남 신안군에 세계 최대 규모인 24MW급 태양광발전소를 준공 · 운영 중에 있다.

(주)동양건설산업의 이길재 사장을 만나 그의 인생관과 경영철학을 들어본다.

- 일 시 : 2009년 8월 5일 16:00
- 장 소 : (주)동양건설산업 사정실
- 참석자 : 이길재 사장, 한국기술사회 정춘병 홍보위원, 구수연 사원

**Q.** 먼저, '건설의 날'에서 철탐산업훈장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의 약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1970년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여 현대건설 국내토목사업본부에 입사했습니다. 이 때가 건설업계에 첫발을 내딛을 때였지요. 현대건설에서 86년까지 국내 및 해외사업 총괄, 견적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해오면서 폐낭대교 2단계 수주, 이라크 키루쿠-하디다 북철을 수주했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아시아나 항공, 금호건설, 신동아건설에서 부사장이란 직위를 해오다 2005년 현대건설에 기술개발원장, 토목본부 부사장을 거쳤지요. 이후 200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동양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학회 수석부회장, 한기람회 회장, 한국태양광발전자협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지요.

**Q.** (주)동양건설산업의 주요 사업영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1년 건설역사를 지닌 동양건설산업은 도로, 항만, 철도, 환경, SOC, 플랜트 등의 토목사업부문과 명품 브랜드 '파라곤'을 필두로 한 주택건설과 함께 오피스텔, 리조트 등의 건축사업부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24MW급 단축 추적식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데 이어 세계최초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을 선보이는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 남양주의 동양파라곤(PARAGON)에 적용된 공동주택 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양건설산업은 세계 최초로 공동주택에 연료전지시스템을 도입, '호평파라곤 테라스하우스' 280.78㎡(84평형)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택분야 연료전지시스템 도입은 모니터링 단계에 불과해 공관이나 연구소 등 일부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왔으며, '호평파라곤 테라스하우스'처럼 수십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 설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연료전지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가진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단독주택 정도에만 설치되었을 뿐, 공동주택 적용

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란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세계 최초 연료전지시스템 도입은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호평파라곤 테라스하우스에 도입된 연료전지시스템은 발전효율이 약 35%에 발전 시 발생하는 온수를 활용할 경우, 전체효율이 무려 80%에 이르는 1KWh급으로 도시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고 난방과 온수공급도 가능한 일체형 시스템입니다.

일체형 시스템이라 기존 보일러 설치면적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작으면서도 안정성과 효율성도 탁월하여 국내 최초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연료전지 가동 시 발생하는 열원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유용한 음식물쓰레기건조기, 수건건조기, 족욕기, 의류건조기, 수저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을 특허 출원한 상태로 '호평파라곤 테라스하우스' 40세대에는 의류건조기와 수저건조기가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각 가정의 가전제품 사용 패턴을 인식해 향후 각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를 계절, 시간대별로 최적화해서 공급하는 홈네트워크 시스템도 프로그램 되어 있어, 그 우수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Q.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의 회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 성장은 어떤 것이지요?**

요즘처럼 어려운 불황 시기에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성격으로 투자가능한 부분을 든다면 수력, 조력, 조류, 풍력이 있습니다. 욕심을 더 부린다면 원자력 발전이 있지요. 녹색성장은 국가보상제도와 연계해 추진한다면 탄소배출권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난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녹색성장은 건설취업계에도 훈풍을 몰고 오지요. 일자리가 다수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태양광 발전 가능성은 소재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국산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건설비용과 정부보상비용이 저렴해질 것입니다.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이 보상제도를 더욱 선호하도록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Q. (주)동양건설사업의 비전과 앞으로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동양건설사업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 관공사와 민간공사의 비율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의 차별화로 "Home-Office-Sports"를 연계하는 "One stop-life town" 등 신개념 주거문화를 창조하는데 있어 또 한 번의 선발주자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 및 합리적인 경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경영이념으로 철저한 내실위주의 경영관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6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며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업 가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동양건설사업은 다가오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제2의 창업이라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경영기반 구축', '기술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가치경영을 통한 고객 봉사'(Dynamic & Progressive Management, Development & Research, Dedication to our Customers) 라는 경영비전을 바탕으로 영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리 및 정보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것입니다.

**Q. 끝으로 기술사회와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 언해주십시오.**

기술사, 기술교육이 대부분 실무요소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결과 위주의 학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면 건설기술자의 경우 측량이 가능한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CAD, 품질시험의 부분적 기능요소들을 거의 갖추지 못합니다. 취업 후에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또 하나는 외국어의 구사능력이 떨어져서 FTA가 상호 인준되어 시행하게 될 때에 기술사들이 자신의 자질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점이지요. 기술사들은 자기개발을 위하여 이론적인 것과 동시에 실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1인 다역(多役)이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